

아동우울척도의 구성과 타당화*

배 유 진[†]

용남초등학교

홍 상 황

진주교육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아동우울에서 나타나는 핵심적 특징이나 증상들을 포함하면서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아동우울 척도를 구성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기존의 아동우울을 다룬 연구논문에서 밝혀진 아동우울의 임상적 특징을 도출하고 동시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우울 관련 문항을 수집하여 정서, 인지, 신체 및 생리적 증상, 또래관계, 동기문제 등의 영역으로 분류하였다. 분류한 문항 중에서 54개의 예비문항을 도출하여 경상남도 소재 7개 초등학교 3~6학년 1,515명에게 실시하여 문항의 왜도, 첨도,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전체상관, 내적 합치도, 문항이 지니고 있는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45문항을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문항과 하위 척도 간의 신뢰도, 내적 합치도,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10개의 표본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통계 처리하였고,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여 25문항으로 된 단축형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아동우울척도의 내적 합치도는 .88~.97, 반분신뢰도는 .87~.95,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90의 범위였고, 단축형의 내적 합치도는 .87~.97,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6~.94의 범위였고 아동우울과 관련 있는 여러 지표들과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살펴본 결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우울척도의 하위 척도별 점수와 단축형 하위 척도별 점수를 성과 학년별로 비교한 결과 성과 학년별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성과 학년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우울 관련 검사들이 개발된 지 오래되어 진단체계에 맞지 않고, 검사문항의 의미변별이 어렵고, 외국에서 개발된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여 우리나라 아동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는 등 몇 가지 제한점을 보완하여 아동우울척도를 구성하고 타당화하고 아동우울척도 단축형을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아동우울, 아동우울척도

* 본 연구는 1저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배유진, 용남초등학교, 경남 창원시 도서관길 43번지

Tel : 055-282-7276, E-mail : pmonica@hanmail.net

우울은 정신적 감기에 비유할 정도로 흔히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 상태 또는 경험이고 우울증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신병리 중 하나이다. 자살에 이르는 비율도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 훨씬 높고 자주 재발한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그 중 아동우울은 우울한 감정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행동을 통해 표현되는데 변덕스럽고, 까다롭고, 시무룩하고, 쉽게 흥분하며, 분노 발작 등이 특징이다.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시작된 우울증은 성인기에 시작된 우울증에 비해 더 오래 지속되고 우울 삽화가 사라진 후에도 다시 재발될 확률이 높다(Kovacs, Gastonis, Paulauska, & Richard, 1989). 그러나 우울 증상은 경험하는 개인이 가장 잘 알 수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울증상과 우울감을 가진 아동과 청소년은 쉽게 파악하기 어렵고 내향적인 성향을 지닌 아동의 경우 찾아내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 산만하고 과격한 행동과 같은 외현적 장애를 나타내는 아동은 비교적 눈에 띄기 때문에 조기에 개입할 수 있는데 반해, 우울 증상 및 우울 장애를 지닌 아동들은 조기개입이 어렵고 전문적인 치료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적다(배주미, 2000). 우울한 초등학생의 경우, 풀이 죽어있고 잘 울며 집중력이 떨어져 학교성적이 저조하고 미래에 대해 부정적이고 두통, 복통 등의 신체증세를 호소하기도 한다. 이들은 불행감, 슬픈 감정, 무기력감 등의 정서적인 증상을 주로 나타내며 사랑 받지 못하고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며 안정적이지 못하고 집중력이 낮다(이혜련, 1993).

임상적 관심이 되는 우울은 모든 사람들이 때때로 경험하는 기분의 동요나 이따금씩 찾아오는 우울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경우를 말한

다. Toolan(1962)은 아동기의 우울의 임상적 특징에 대해 우울 감정을 직접 호소하는 일이 흔하지 않고 대신 우울한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문제 행동 등을 보이면서 우울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아동기의 우울 특징은 성인기의 것과 공통되는 부분도 많지만 성인과는 다른 행동상의 문제를 나타내는 가면우울의 형태로 아동기의 우울을 진단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문제로 인식될 수도 있다(김미연, 2008). 아동들은 자신의 경험과 상태를 관찰하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보고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못하고, 겉으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행동적인 문제가 아닌 한 주변의 가족들이 이를 지각하기가 쉽지 않으며 부모는 아동의 발달과 심리적 적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관찰능력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아동의 우울을 조기에 찾아내기 위해서는 아동들이 경험하는 내적 경험과 외현적 문제 행동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우울한 아동의 경우, 슬픈 감정을 느끼지만 자신의 감정이나 우울상태를 정확하게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정상적인 아동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이은중, 2002).

따라서 아동의 우울증상을 객관적이고 손쉽게 평가할 수 있는 우울척도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미 개발된 대표적인 우울증 척도로 Kovacs(1983)가 제작한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우리나라 아동에게 맞게 수정 보완한 한국형 소아 우울척도,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Depression Scale(CES-D), Zung Self-Rating Depression Scale(SDS) 등을 들 수 있다. 최근에는 조용태, 이근매(2008)가 4~18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장애를 평가하는 The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on Checklist(CADC)를 개발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KPRC), 아동과 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와 같은 종합적인 성격 검사의 하위 척도에서도 우울을 다루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여러 기존의 우울 검사 도구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요소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성인 집단에서 BDI와 하위 문항들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어 온 것과 달리, CDI에서 측정하고 있는 몇 가지 증상들은 적용 대상의 발달 수준에 따라 우울 증상의 일부로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는 점에서 CDI는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우울증의 진단도구로서 한계가 있다(Helsel, & Matson, 1984). 이와 관련하여 DSM-IV(APA, 1994)에서도 아동은 신체적 호소와 같은 증상이 주로 나타나지만 청소년은 지나친 수면과 같은 증상을 주로 보인다고 기술하고 있다. 둘째, CES-D의 경우 성인용 문항을 청소년에게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아동에게는 실시가 불가능하다. 셋째, CDI는 1961년에 DSM-III를 토대로 개발된 BDI의 문항을 아동의 수준에 맞추어 1983년에 개발한 것으로 척도가 개발된 지 오래되었고, 정신의학적 진단체계가 한 단계 발전된 DSM-IV에 근거한 새로운 척도 개발이 필요하다. CDI의 근간이 되었던 BDI도 이미 BDI-II가 개발되었다. 넷째, CDI는 0, 1, 2의 3점 척도로 되어 있어 아동들이 실시할 때 “슬플 때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와 같은 질문을 하는 등 각 문항 간의 변별에 어려움을 느끼며, 한 문항에 응답하기 위해 0, 1, 2에 해당하는 3문장을 읽어야 하므로 응답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다섯째, 우울증의 특정 핵심 증상은 발달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할 수 있으나, 우울의 표현 양식은 개인의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발달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Calson, & Kashani, 1988). CDI, CES-D, SDS와 같은 척도들은 외국에서 제작되어 우리나라 아동의 상호의존성, 귀속성 및 권력추구, 집단주의, “우리”의식 등(이소은, 1999)의 사회문화적 특징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여섯째,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내적 경험이 중요한 정서는 아동 자신의 주관적인 보고가 정확한 정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최근에 한국에서 개발된 CADC는 부모보고용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이와 같은 기존의 우울 검사 도구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동의 우울에서 나타나는 핵심적 특징이나 증상들을 망라하면서 심리측정적으로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우울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개관하며 우울한 아동들이 나타내는 내적인 심리적 경험이나 외현적인 문제 행동들을 열거하여 문항을 구성하고 이와 더불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아동, 청소년용 우울검사 문항을 취합하여 정서, 인지, 또래 관계, 신체 및 생리적 증상, 동기의 문제 등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아동우울척도를 구성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 문항 특성 등을 알아내고, 가능한 적은 수의 문항으로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아동우울척도의 단축형을 구성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방 법

연구대상

아동우울척도를 구성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토하기 위해 경상남도 중소도시와 군 지역 소재 7개 초등학교 3~6학년 1,515명(남 814명, 여 701명)을 대상으로 10개의 표본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척도의 신뢰도와 수렴 및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9개의 타당도 지표를 사용하였는데, 타당도지표의 수와 포함되는 문항의 수가 많아서 10개 표본으로 구분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한 자료 중에서 성별, 학년, 연령을 기재하지 않았거나 누락문항 수가 전체 문항 수의 5% 이상인 자료 124부를 제외한 1,39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 중 남녀 학생은 각각 737명(52.98%), 654명(47.02%)이었고, 평균연령은 11.83세($SD=1.00$)이었다. 전체 대상자 중 3학년 130명(남 72명, 여 58명, 평균나이 9.93세($SD=.26$)), 4학년 342명(남 182명, 여 160명, 평균나이 10.95세($SD=.24$)), 5학년 459명(남 245명, 여 214명, 평균나이 11.92세($SD=.28$)), 6학년 460명(남 238명, 여 222명, 평균나이 12.92세($SD=.29$))이었다.

연구도구와 문항 도출

아동우울의 임상적 특징이나 증상을 잘 반영하는 문항을 작성하기 위해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진 증상적 특징들을 수집하고 각 증상을 기술하여 문장을 작성하였다. 기존의 아동우울을 다룬 연구들에서 보고되는 증상은 다음과 같다: (1) 아동기에 우울 감정을 직접 호소하지 않고 위장되어 나타나는 우울 증상으로 짜증, 과다활동, 공격적 행동, 친구관계 악

화, 무단결석, 학교 거절증, 가출, 학교성적 저하, 신체증상, 분노발작, 공포증, 방화 등 (Toolan, 1962; Glaser, 1967) (2) 아동기의 가려진 우울증에 대하여 비난, 불만, 상실, 학대, 유기, 죽음, 자살, 절망, 무기력감, 죄책감, 자신의 무가치함, 사랑받지 못함, 슬픔의 표현, 우는 행동, 식욕부진, 수면의 문제, 정신운동지체, 과잉 활동, 공격성, 비행, 자아존중감의 저하, 자기 비하적 생각, 절박감, 에너지 수준의 저하 및 무기력감 등(Cytryn과 Mcknew, 1972) (3) 발달단계별 임상양상 중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중기 아동기에 나타나는 슬픔, 위축, 맥없음, 절망, 수동성, 흥미상실, 지루함의 호소, 말없음, 허무망상, 신체적 망상, 자기책망, 식욕감퇴, 과식, 수면장애, 의욕감퇴, 두통, 동통, 어지러움, 피곤함, 자살사고, 자살시도, 사고(accidents)가 많음, 학업 부진, 친구관계의 감소, 백일몽, 집중력 장애, 충동조절의 곤란, 도둑질, 공격성의 증가, 초기 불면증, 활동량의 증가 또는 감소 등(강경미, 1994).

이러한 증상들에 초점을 두고 문항을 기술하고 기존에 아동우울을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다음 검사들의 문항을 취합하였다. (1)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Kovacs(1983)가 제작한 CDI를 우리나라 아동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조수철 등, 1990) (2)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에서 일반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우울증후군의 역학적 연구를 하기 위하여 개발한 역학연구용 우울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한 도구인 개정된 한국어판 CES-D(조맹제, 김계희, 1992) (3) 외국에서 제작된 기존 척도들이 갖는 한계와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의 증상을 잘 반영하는 우울증 척도 개발의 필요성으로 인해 우리나라 사람의 우울 양상을 반영하는 자기보고식 한국우

울증검사 개발을 목표로 하여 개발된 Korean Depression Scale(KDS, 이민수, 이민규, 2003) (4) 4-18세 아동·청소년 우울장애를 평정하기 위해 개발한 평정척도 The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on Checklist(CADC, 조용태 등, 2008) (5) Achenbach와 Edelbrock(1983)이 개발한 CBCL을 우리나라에서 번역하여 표준화한 행동평가도 구이며 아동·청소년의 심리장애 진단에 유용한 임상적 도구인 K-CBCL(Korea-Child Behavior Checklist)의 자기보고척도 YSR 중 우울/불안, 사회적 위축, 주의집중 하위 척도(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01) (6) 종합적 성격검사의 하위 척도 중 우울 척도를 포함하는 도구로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의 아동보고형(KPI-C-R-CRF)의 하위 척도 중 우울척도(DEP)의 하위 요인인 자신감 결여, 활동성 저하(흥상환, 한태희, 2007).

위에서 살펴본 기존의 단일 우울 척도와 종합적 성격검사의 하위 척도들의 문항 내용, 각 척도 문항들을 요인 분석한 기존 연구들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러한 척도들에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요인도 있고 특정 검사에만 포함된 영역도 있다. 이러한 하위영역들의 요인이 공통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영역을 분류하면 정서, 인지, 또래 또는 대인관계, 신체-생리적 증상, 동기증상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기존의 아동우울을 다룬 연구들에서 보고된 아동우울의 임상적 특징을 반영하여 작성한 67문항과 기존에 아동우울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6종류의 검사 문항들을 수집하여 공통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5가지 하위 요인으로 분류한 161문항을 합해서 228개의 예비문항을 만들었다. 이렇게 구성한 예비문항의 의미를 검토하여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문항을 빼고 54개의 예비문항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예비

문항을 초등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5명의 교사와 연구자가 개별 문항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이면 이해할 수 있는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54개의 예비문항 중에서 개념적으로 아동의 우울을 평정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4문항(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후회할 때가 많다. 머리가 자주 아프다. 자주 어지럽다. 나는 비밀이 많다.)을 일차적으로 제외하였다. 그리고 아동우울척도의 하위 척도를 알아보기 위해 분석 하는 과정에서 척도에 구성된 문항들 중 척도별 문항의 왜도, 첨도,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 내적 합치도, 문항의 의미를 고려하여 5문항(기운이 없다.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 온 몸이 쭈시고 아프다. 조그만 일에도 잘 싸운다. 요즘 들어 밥맛이 없다.)을 추가적으로 제외하여 최종 45문항을 구성하였다.

타당도 지표

삶의 만족도

개인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당신의 생활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하나의 문항에 대해 0~10점 사이에서 평정하는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Veenhoven, Ouweneel 및 Piet(1995)이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국가 간의 비교를 한 연구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한 방법이다.

아동용 불안검사

아동용 불안검사는 Reynolds 와 Richmond (1978)가 Castenada 등(1956)이 개발한 아동용 표현불안척도(Children's Manifest Anxiety Scale, CMAS)의 문항을 수정 보완하여 아동과 청소년

년의 불안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정된 것(Revised CMAS)이다. 이 검사는 총 3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에 대해 예, 아니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이 중 28 문항은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고 9문항은 허구척도에 속하는 내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진숙과 조수철(1990)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이들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1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23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전체 37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5이었다.

아동우울검사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CDI)는 아동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Kovacs(1983)가 제작한 CDI를 조수철과 이영식(1990)이 우리나라 아동에게 맞게 수정·보완한 한국형 소아우울척도이다. 이것은 Beck의 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를 8~13세의 아동연령에 맞게 변형한 것으로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검사시점으로부터 지난 2주 동안의 자신의 기분상태를 스스로 평가하여 각 항목에서 3개의 서술문 중 자신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을 골라 표시하는 자기보고식 우울 평정 척도이다. 각 문항의 점수는 0~2점까지의 3점 척도로 되어 있고, 총 우울점수는 0~54점 사이에 분포가능하고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 척도는 우울정서 5문항, 행동장애 7문항, 흥미상실 7문항, 자기비하 4문항, 생리적 증상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점에 대한 Cronbach α 값은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07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전체 27문항의 내적 합치

도는 .88이었다.

상태특성 분노표현척도

아동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화를 잘 내고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분노표현척도 연구들(전경구, 1996; 전경구, 김동연, 이준석, 2000)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홍상환, 광경숙, 김미라(2009)가 초등학생에 맞게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느끼고 있는 자신의 성격적 경향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을 고르는 9문항과 화가 났을 때 자신이 표현하는 방식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고르는 22문항을 '전혀 그렇지 않다(0점)'부터 '거의 언제나 그렇다(3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한다. 요인 1은 특성분노 기질요인, 요인 2는 특성분노 반응요인으로 볼 수 있고 내적 합치도는 각각 .77, .69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24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31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9이었다.

자아존중감 검사

Coopersmith(1967)가 제작한 자아존중감 검사(Self-Esteem Inventory, SEI) 단축형을 김경연(1987)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SEI는 아동용으로 제작되었으나 성인까지 적용범위를 인정받고 있으며 일반적 자아영역, 사회적 자아영역, 가정생활에 관한 자아영역, 학교생활에 관한 자아영역 4개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각 영역에 대한 아동 자신의 평가를 측정하도록 고안되었다. 이 척도는 자신의 상태나 느낌과 비슷하면 '그렇다'에 그렇지 않으면 '아니다'의 칸에 응답하도록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김경연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80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33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25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6이었다.

사회정서적 고립척도

아동의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아동이 지각하는 고립의 정도를 사회·정서적 측면에서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허승희(1993)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까지를 대상으로 하며, 정서적, 사회적 외로움 및 정서적, 사회적 고립상태를 4개 요인에 따른 32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점수는 각 문항 당 1점에서 5점까지로 평정되며, 점수의 분포는 최하 32점에서 160점까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그러므로 이 점수가 클수록 동료관계에서 고립되는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있다. 허승희(1993)의 연구에서는 내적 합치도가 .86이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29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32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5이었다.

긍정적 정서

이은경과 이양희(2006)가 개발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아동용 정서경험 척도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용 정서경험 척도는 우리나라의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만 10~12세의 아동이 경험하는 정서 용어로 구성되었다. 모두 57문항으로 정적 정서 용어 24개와 부적 정서 용어 33개로 구성되며 4점 척도로 아동의 기분을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점은 57~228점 사이에 분포한다. 아동용 정서 경험 척도의 정적 정서 용어의 구성타당도 점수는 .97이며 부적 정서 용어는 .98 이었다. 본 연구에

서는 우울과 대조적인 긍정적 정서와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아동용 정서경험 척도 중에서 긍정적 정서 용어 24개 중에서 아동이 잘 사용하지 않거나 의미를 왜곡해서 사용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3문항(열중하다, 반갑다, 사랑하다)을 제외하고, 3~6학년 아동이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여 21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35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21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7이었다.

부정적 자기 진술 질문지

부정적 자기 진술 질문지(Negative Affect Self-Statement Questionnaire)는 아동과 청소년의 부정적 자기진술을 측정하기 위해 Ronan과 Kendall 및 Rowe (1994)가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질문지는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는 사람들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자기진술과 전반적인 부정적 정서와 관련되는 자기 진술을 구분하여 측정한다. 각 문항의 내용이 지난주에 얼마나 자주 있었는가에 따라 1점에서 5점으로 평정한다. 내적 합치도는 .95,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5로 높게 나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영, 김지혜(2002)가 번안하여 새롭게 제작한 11~15세용 39문항을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한 117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39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4이었다.

부정적 자동적 사고 척도

부정적 자동적 사고 척도(Automatic Thought Questionnaire-Negative, ATQ-N)는 우울증과 관련된 부정적 자동적 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Hollon과 Kendal(1980)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우울의 정도가 높은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 내용을 기술한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는지를 ‘전혀 아니다(1점)’부터 ‘항상 한다(5점)’까지의 5점 척도로 평정하고 총 3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양재원, 홍성도, 정유숙, 김지혜(2005)가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 타당화 연구에서는 부정적 자기평가, 현실에 대한 불만과 변화욕구, 무기력과 절망적 태도 등 4요인이 도출되었으며 내적 합치도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 수집한 133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한 결과 전체 30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7이었다.

자료처리와 분석

수집한 자료 중에서 무성의하게 응답하거나 대상아동이 성별, 연령 등과 같은 신상정보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체 문항의 5% 이상을 응답하지 않았거나 이중 응답한 자료를 제외한 1,391명의 자료를 윈도우즈용 SPSS 16.0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처리하였다.

첫째, 전체 54문항의 왜도(kurtosis), 첨도(skewness),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전체 상관, 내적 합치도, 문항의 의미를 고려하여 9문항을 제외한 최종 45문항을 선정하였다. 둘째, 전체 문항 간 상관을 구하여 비일관성척도를 구성하였다. 셋째, 척도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반분신뢰도, 내적 합치도 및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구하였다. 넷째, 본 연구에서 구성한 아동우울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밝히기 위해 여러 가지 타당도 지표와의 상관을 구하였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에 따라서 아동우울척도 점수가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전체 우울 점수와 요인별 우울 점수의 저,

중, 고집단에 따라서 세 집단을 선정하고 다변량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아동우울의 하위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우울정도가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성과 학년에 따른 척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일곱째, 가능한 적은 수의 문항으로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검사문항의 양호도를 판단하는 방법인 문항반응이론(item response theory, IRT)을 적용하여 단축형 문항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다분항반응모형 중 정답과 오답 사이의 중간 능력을 고려하여 피험자들의 다양한 반응을 범주화하여 점수화할 때 사용되는 모형인 Samejima(1969)의 등급반응모형(graded response model, GRM)을 적용하였다. 등급반응모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 검사는 피험자가 지니고 있는 하나의 특성(single trait)을 측정한다는 검사문항의 일차원성 가정을 충족해야(성태제, 2001) 하는데 본 연구에서 구성한 아동우울척도의 제 1척도의 설명비율이 전체분산(공통분산)의 41.73%였다는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일차원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판단하고 문항의 난이도와 변별도를 고려한 2모수 등급반응모형(two-parameter graded response model, 2P GRM)을 적용하였다. 2모수 등급반응모형에 의한 문항변별도, 문항정보를 계산하기 위해 MULTILOG 6.0(Thissen, 1991)을 사용하였다. 문항모수 추정방법은 본 연구에서는 수검자 모수와 문항 모수 모두를 모르는 상태이고 문항모수를 추정할 경우 주변최대우도추정법(marginal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ML)에 의한 문항모수 추정이 정확하다는 Seong, Kim과 Cohen(1997)의 연구결과에 따라 주변최대우

도추정법을 사용하였고 본 연구의 표집 크기 때문에 MULTLOG 명령어에 >EST BIG을 첨가하였다.

문항반응이론에 따르면 문항변별도가 높을수록 좋은 문항이고(Baker, 1992), 문항변별도는 .65~1.34의 범위일 경우 적절하고, 1.35~1.69의 범위일 경우 높고, 1.70 이상일 경우 매우 높다(성태제, 1991; Baker, 1985). 또한 문항이 전체 능력 범위에 흩어져 있는 피험자의 능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량인 문항정보의 값이 클수록 좋은 문항이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여 본 연구에서 구성한 아동우울척도의 단축형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하위 척도별로 문항변별도가 1.70 이상이면서 문항정보값이 큰 문항을 일차적으로 선별하였다. 이때 우울에 관한 인지와 정서 척도의 문항들의 문항변별도가 모두 1.70 이상으로 높은 문항변별도를 나타내어 1 척도에 한해서만 좀 더 높은 기준을 부여하여 2.00 이상의 문항들을 선별하였다. 이렇게 선별된 문항들은 다시 상관계수, 제거 지수(alpha if item deleted)를 검토하여 나머지 문항들과의 상관계수가 낮고 해당 문항을 포함시키지 않을 때 나타나는 내적 합치도가 크게 증가하는 문항은 추가로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25문항의 단축형 문항을 선정하여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구성된 단축형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원척도와의 상관, 검사-재검사 신뢰도, 하위 척도별 내적 합치도를 구하였고, 아동의 성과 학년에 따라 척도점수 차이를 다변량 분석하였다. 상관계수, 신뢰도, 성과 학년에 따른 척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윈도우즈용 SPSS 16.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결 과 A

본 연구는 아동우울척도와 아동우울척도 단축형 문항을 구성하고 그 신뢰도, 타당도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A에서 아동우울척도의 하위 척도 구성과 신뢰도, 타당도를 제시하고 연구결과 B에서 단축형 문항을 선정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제시하였다.

하위 척도 구성

아동우울의 하위 척도를 구성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하위 척도 간의 상관이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하는 프로맥스 회전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고유값, 스크리 테스트와 요인의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 3개의 하위 척도를 추출하였다. 이 모형은 전체 분산의 49.8%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하위 척도는 아동우울과 관련된 인지와 정서를 설명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분산의 41.7%를 설명하고, 두 번째 하위 척도는 의욕 및 신체활력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분산의 4.8%를 설명하고, 세 번째 하위 척도는 교우관계에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분산의 3.2%를 설명하고 있었다. 23번 문항(나를 무시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다)의 요인 부하량은 의욕 및 신체활력 척도에 .310, 교우관계 척도에 .203으로 나타났으나 개념적으로 교우관계 및 학교생활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어 교우관계척도로 분류하였다. 하위 척도별 각 문항의 요인 부하량은 표 1과 같다.

표 1. 아동우울척도의 하위 척도 분석 결과

문항	인지와 정서	의욕 및 신체활력	교우관계
34. 때때로 울고 싶어진다.	.938		
7.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852		
27. 눈물이 자주 난다.	.820		
18. 슬프다는 느낌이 든다.	.800		
36.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773		
2.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757		
28. 나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739		
41. 속상한 일들로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	.723		
12. 가족들(부모님이나 형제)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	.718		
37. '나는 왜 이럴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692		
31.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548		
43. 쓸쓸할 때가 많다.	.517		.310
32. 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 같다.	.481		
1. 나는 외롭다는 느낌이 든다.	.465		.375
26. 이런 저런 걱정이 많아서 집중이 잘 안 된다.	.442	.340	
11.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	.363	.325	
24. 잘못되는 일은 모두 내 탓인 것 같다.	.362		
5. 모든 것이 귀찮다.		.810	
10.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을 때가 많다.	.710		
9. 자고 일어나도 상쾌하지가 않다.	.705		
13.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온다.		.643	
30. 꼼짝하기가(움직이기가) 싫을 때가 있다.	.206	.628	
21. 최근 들어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252	.575	
38.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하다.		.540	
22. 재미있는 일이 없이 지루하다.		.514	.203
44. 나는 불평, 불만이 많은 편이다.	.299	.507	
39. 쉽게 지치고 항상 피곤하다.	.228	.504	
14. 하고 싶은 일이 별로 없다.	.044	.489	
4.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488	
6. 짜증이 난다.	.440	.441	
17. 아무런 간섭도 받고 싶지 않다.	.301	.436	
15. 자주 화가 난다.	.388	.412	
45.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모조리 부숴버리고 싶다.	.327	.395	
42. 학교에 가기 싫다.		.393	.262
40. 나는 안절부절 못할 때가 많다.	.312	.328	
20. 선생님은 나보다 다른 아이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310	.203
8. 친한 친구가 별로 없다.			.890
16.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편이다.	-.230		.839
23. 나를 무시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다.			.814
3.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742
25.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다.			.706
35. 친구들과 말을 하고 싶지 않다.			.555
33.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554
19.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532
29.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다.	.245		.410

주 1. 요인 부하량이 .20 이하인 것은 표시하지 않았음.

비일관성척도

문항에 대한 반응과정에서 수검자의 일관성 있는 반응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45개 문항 간의 상관을 구하여 상관계수가 .60이상인 문항 쌍 중에서 인접해 있는 문항 쌍을 제외하고 문항의 위치와 의미를 고려하여 총 7개

문항 쌍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평균은 7.00 ($SD=8.00$)이다(표 2).

신뢰도

아동우울척도 전체 45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7로 매우 높았고 하위 척도별 신뢰도는 각각 .95, .91, .88이었다. 전체 문항의 반분신뢰도는 .95이었고 3개 하위 척도의 반분신뢰도는 .87~.92의 범위에 있었다. 또 시간에 따른 척도 점수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2주 간격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문항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 3개 하위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89의 범위에 있었다(표 3).

표 2. 비일관성척도의 문항 쌍과 문항 간 상관계수

비일관성척도 문항	r
2.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68
7.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3.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72
23. 나를 무시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다.	
6. 짜증이 난다.	.61
15. 자주 화가 난다.	
11.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	.61
32. 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 같다.	
18. 슬프다는 느낌이 든다.	.66
43. 쓸쓸할 때가 많다.	
27. 눈물이 자주 난다.	.66
34. 때때로 울고 싶어진다.	
29.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다.	.66
42. 학교에 가기 싫다.	

표 3. 아동우울척도의 신뢰도

	반분 신뢰도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전체	.95	.97	.90
인지와 정서	.92	.95	.85
의욕 및 신체활력	.92	.91	.89
교우관계	.87	.88	.81

주 1. 반분 신뢰도와 내적 합치도는 3~6학년 1,391명의 자료,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4~6학년 104명의 자료를 근거로 계산한 결과임

표 4. 아동우울척도의 하위 척도 간 상관

	전체	인지와 정서	의욕 및 신체활력	교우관계
인지와 정서	.96	-		
의욕 및 신체활력	.94	.84	-	
교우관계	.85	.76	.69	-

표 5. 아동우울척도의 타당도지표와 상관

타당도지표	아동우울척도			
	전체	인지와 정서	의욕 및 신체활력	교우관계
삶의 만족도	-.69**	-.66**	-.64**	-.59**
불안검사	.65**	.65**	.63**	.48**
과도한 걱정	.56**	.58**	.50**	.42**
예민함	.63**	.65**	.60**	.44**
신체 수면상의 문제	.50**	.49**	.50**	.35**
자존감이나 불행감	.74**	.71**	.69**	.62**
우울(CDI)	.81**	.74**	.78**	.71**
부정적 자기상	.69**	.62**	.68**	.61**
대인관계	.77**	.72**	.67**	.79**
부정적 기분 및 신체적 증상	.70**	.64**	.73**	.51**
분노검사	.65**	.63**	.64**	.49**
특성 분노	.62**	.58**	.63**	.47**
분노 표출	.62**	.60**	.64**	.41**
분노 억제	.69**	.68**	.61**	.63**
분노 조절	-.07	-.06	-.07	-.08**
사회정서적 고립척도	.60**	.53**	.49**	.73**
정서적 외로움	.74**	.70**	.67**	.71**
사회적 외로움	.38**	.33**	.30**	.52**
정서적 고립	.69**	.65**	.52**	.85**
사회적 고립	.28**	.21**	.26**	.38**
자아존중감검사	-.83**	-.79**	-.77**	-.73**
긍정적 정서	-.68**	-.65**	-.64**	-.60**
부정적 자기진술 질문지	.83**	.85**	.76**	.64**
우울관련 자기진술	.86**	.88**	.81**	.63**
부정적 자기평가	.82**	.81**	.73**	.77**
불안관련 자기진술	.68**	.70**	.63**	.54**
긍정적 자기진술	-.55**	-.51**	-.54**	-.49**
부정적 자동적 사고	.89**	.89**	.79**	.80**
부정적 자기평가	.82**	.82**	.71**	.72**
현실에 대한 불만과 변화 욕구	.88**	.87**	.80**	.76**
무기력과 절망적 태도	.80**	.76**	.68**	.83**

주 1. ** $p < .001$

하위 척도 간 상관

아동우울척도의 3개의 하위 척도와 전체 점수 상관은 .85~.96의 범위에 있고, 각 하위 척도 간에는 .69~.84의 범위에 있었다(표 4).

수렴과 변별 타당도

아동우울척도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밝히기 위해 9가지 타당도지표와의 상관을 구하였다(표 5). 아동우울척도의 총점과 타당도 지표와의 상관을 살펴보았을 때 불안검사($r(123)=.65$), CDI($r(107)=.81$), 부정적 자기진술 질문지($r(117)=.83$), 분노검사($r(123)=.65$), 사회정서적 고립척도($r(129)=.60$), 부정적 자동적 사고($r(133)=.89$)와 같은 부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고, 삶의 만족도($r(1,391)=-.69$), 부정적 자기진술 질문지의 하위 척도인 긍정적 자기진술($r(117)=-.55$), 자아존중감 검사($r(133)=-.83$), 긍정적 정서($r(135)=-.68$)와 같은 긍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아동우울에서 나타나는 인지적, 정서적 증상과 관련된 아동우울 인지와 정서 하위 척도는 불안검사 총점($r(123)=.65$)과 그 하위 척도 중 특히 자존감이나 불행감을 재는 하위 척도인 CDI 총점($r(107)=.74$), 부정적 자기진술 질문지 총점($r(117)=.85$)과 그 하위 척도 중 특히 우울관련 자기진술($r(117)=.88$), 부정적 자기평가($r(117)=.81$), 분노검사($r(123)=.63$), 사회정서적 고립척도의 하위 척도인 정서적 외로움($r(129)=.70$) 정서적 고립($r(129)=.65$), 부정적 자동적 사고($r(133)=.89$)와 그 모든 하위 요인 부정적 자기평가($r(133)=.82$), 현실에 대한 불만과 변화 욕구($r(133)=.87$), 무기력과 절망적 태도($r(133)$

$=.76$)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r(1,391)=-.66$), 부정적 자기진술 질문지의 하위 척도인 긍정적 자기진술($r(117)=-.51$), 자아존중감 검사($r(133)=-.79$), 긍정적 정서($r(135)=-.65$)와 같은 긍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와도 부적 상관이 있었다.

아동우울에서 나타나는 의욕 및 신체활력 저하와 관련된 의욕 및 신체활력 저하 하위 척도는 불안검사($r(123)=.63$), CDI($r(107)=.78$), 부정적 자기진술 질문지($r(117)=.76$), 분노검사($r(123)=.64$), 사회정서적 고립척도의 하위 척도 중 특히 정서적 외로움($r(129)=.67$), 부정적 자동적 사고 총점($r(133)=.79$)과 그 모든 하위 요인인 부정적 자기평가($r(133)=.71$), 현실에 대한 불만과 변화 욕구($r(133)=.80$), 무기력과 절망적 태도($r(133)=.68$)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삶의 만족도($r(1,391)=-.64$), 부정적 자기진술 질문지의 하위 척도인 긍정적 자기진술($r(117)=-.54$), 자아존중감 검사($r(133)=-.77$), 긍정적 정서($r(135)=-.64$)와 같은 긍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아동우울로 인해 나타나는 교우관계 문제와 관련된 교우관계 하위 척도는 불안검사에서 자존감이나 불행감을 재는 하위 척도($r(123)=.62$), CDI 총점($r(107)=.71$)과 그 하위 요인인 대인관계($r(107)=.79$), 부정적 자기진술 질문지 총점($r(117)=.64$)과 특히 부정적 자기평가($r(117)=.77$), 분노검사의 분노 억제 요인($r(123)=.63$), 사회정서적 고립척도 총점($r(129)=.73$)과 그 하위 척도 중 정서적 외로움($r(129)=.71$), 정서적 고립($r(129)=.85$), 부정적 자동적 사고 총점($r(133)=.80$)과 그 모든 하위 요인 부정적 자기평가($r(133)=.72$), 현실에 대한 불만과 변화 욕구($r(133)=.76$), 무기력과 절망적 태도($r(133)=.83$)와 정적 상관이 있었다. 그리고 삶의 만

죽도($r(1,391)=-.59$), 자아존중감 검사($r(133)=-.73$), 긍정적 정서($r(135)=-.60$)와 같은 긍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준거 타당도

삶의 만족도에 따라서 아동우울척도 점수가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삶의 만족도 점수의 저, 중, 고집단을 선정하고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삶의 만족도 점수의 고저 집단에 따른 아동우울척도의 평균과 표준편차, F값은 표 6과 같다. 삶의 만족도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방법으로 사후 비교한 결과 삶의 만족도 점수의 저, 중, 고집단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삶의 만족도 저, 중, 고 그리고 삶의 만족도와 아동우울의 관계를 추세선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그림 1과 같이 삶의 만족도가 높은 아동은 대체로 우울 점수가 낮고 삶의 만족도가 낮은 아동은 우울 점수가 높은 반비례 관계에 있었다.

성과 학년에 따른 차이

3개의 하위 척도가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성; 남, 여) × 4(학년; 3, 4, 5, 6학년)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성과 학년에 따른 척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7과 같다.

다변량 통계치인 Wilks's Lambda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성($F(10, 1298)=6.558, p<.001$)과 학년별 ($F(16, 1298)=9.115, p<.001$)의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지만, 성과 학년의 상호작용효과($F(16, 1298)=1.024, ns$)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6. 아동우울척도의 삶의 만족도에 따른 척도별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삶의 만족도			F
	저	중	고	
전체	56.11a (27.30)	23.38b (14.37)	10.31c (10.39)	315.12***
인지와 정서	22.34a (12.43)	7.53b (5.77)	2.90c (4.00)	303.74***
의욕 및 신체활력	23.19a (10.61)	11.34b (7.28)	5.56c (5.65)	245.61***
교우 관계	10.58a (7.42)	4.52b (3.92)	1.86c (2.47)	156.70***

주 1. ()안은 표준편차. *** $p<.001$

주 2. 상이한 아래첨자가 붙은 평균들은 사후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함($a>b>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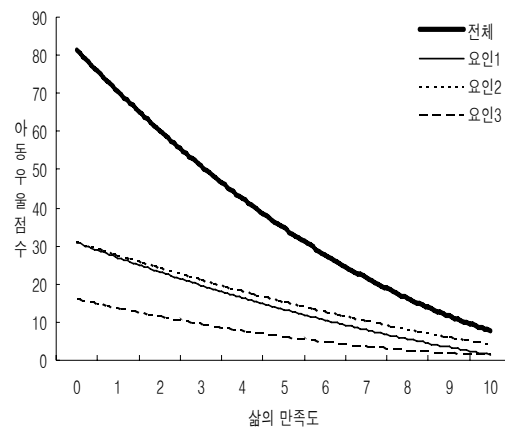


그림 1. 삶의 만족도에 따른 아동우울점수

학년에 따른 차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Scheffé 방법으로 사후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학년에 따른 차이를 사후 비교한 결과 의욕 및 신체활력에서 6학년과 4학년 6학년과 5학년 간에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4학년과 5학년 간에는 4학년이 5

표 7. 아동우울척도의 성과 연령에 따른 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전체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남 (n=737)	여 (n=654)	전체 (n=1,391)	남 (n=72)	여 (n=58)	전체 (n=130)	남 (n=182)	여 (n=160)	전체 (n=342)	남 (n=245)	여 (n=214)	전체 (n=459)	남 (n=238)	여 (n=222)	전체 (n=460)
전체	22.99 (22.23)	24.83 (24.22)	23.86 (23.20)	26.92 (28.26)	23.71 (22.24)	25.46 (25.63)	22.88 (22.20)	23.43 (27.68)	23.14 (24.89)	20.65 (20.71)	24.03 (23.42)	22.25 (22.07)	24.25 (21.68)	26.89 (22.76)	25.51 (22.22)
척도 1	7.95 (9.63)	9.41 (10.42)	8.64 (10.03)	10.31 (12.36)	10.34 (10.90)	10.33 (11.64)	7.92 (9.38)	8.93 (11.43)	8.39 (10.39)	7.14 (9.45)	8.82 (9.82)	7.92 (9.65)	8.12 (9.06)	10.06 (10.07)	9.06 (9.60)
척도 2	10.74 (9.21)	11.32 (10.18)	11.01 (9.68)	10.46 (10.15)	10.31 (10.14)	10.40 (10.11)	10.44 (8.95)	9.99 (11.19)	10.23a (10.04)	9.77 (8.75)	10.59 (9.39)	10.16b (9.06)	12.00 (9.46)	13.22 (9.95)	12.59ab (9.71)
척도 3	4.62 (5.25)	4.47 (5.55)	4.55 (5.39)	6.38 (6.78)	4.91 (5.47)	5.73 (6.25)	5.03 (5.61)	4.53 (6.03)	4.79 (5.81)	4.30 (4.65)	4.46 (5.58)	4.37 (5.10)	4.12 (4.92)	4.31 (5.21)	4.21 (5.06)

주 1. 상이한 아래첨자가 붙은 평균들은 사후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a>b).

주 2. 척도 1은 인지와 정서, 척도 2는 의욕 및 신체활력, 척도 3은 교우관계 척도를 의미함.

학년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 B

실제 상담이나 임상 장면에서 하나의 심리 검사만 실시하는 경우는 드물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검사의 문항이 많아지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게 되고 수검자가 성실하게 반응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한 적은 수의 문항으로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아동우울척도의 단축형을 구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 B를 진행하였다.

검사정보함수

아동우울척도의 단축형을 구성하기 위해서 전체 45문항의 3가지 하위 척도인 인지와 정서, 의욕 및 신체활력, 교우관계 척도별로 검사정보 함수(test information function)를 구하고 하위 척도별 문항변별도와 문항정보값, 문항

범주 난이도(표 8)를 고려하여 1척도 3문항, 2척도 8문항, 3척도 4문항 총 15문항을 제외한 30문항을 일차적으로 선정하였다. 일차 선정한 문항 중에서 문항의 상관계수와 제거지수를 고려하여 상관계수가 낮고 제거지수가 높은 1척도 2문항, 2척도 2문항, 3척도 1문항 총 5문항을 추가적으로 제외하여 총 25개의 단축형 문항을 선정하였다. 하위 척도별 단축된 문항 수는 표 9와 같다.

단축형의 신뢰도

하위 척도별로 원척도와의 상관은 .94~.99 범위로 단축형에서도 원척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신뢰롭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합치도는 .87~.97의 범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6~.94의 범위로 모두 양호하였다(표 10).

단축형의 하위 척도 간 상관

단축형의 하위 척도 간 상관을 구한 결과는

표 8. 아동우울척도 하위 척도의 문항양호도 관련 수치

척도명/문항	문항 변별도	문항 정보값	문항범주 난이도			상관 계수	제거 지수
			1	2	3		
인지와 정서 척도							
43. 쓸쓸할 때가 많다.(*)	3.12(0.16)	13.95	-0.25	0.54	1.16	.749	.935
18. 슬프다는 느낌이 든다.(*)	3.10(0.17)	13.74	-0.23	0.58	1.17	.782	.934
36.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	3.00(0.19)	12.27	-0.05	0.74	1.18	.749	.935
32. 되는 일이라곤 하나도 없는 것 같다.(*)	2.65(0.22)	11.03	-0.22	0.66	1.26	.715	.936
37. '나는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2.63(0.15)	11.44	-0.60	0.39	1.02	.736	.936
28. 나 자신이 불쌍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2.42(0.15)	9.92	-0.27	0.63	1.34	.725	.936
34. 때때로 울고 싶어진다.(*)	2.36(0.16)	9.35	-0.30	0.61	1.22	.711	.936
7.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있다.(*)	2.32(0.15)	9.4	-0.19	0.77	1.58	.707	.936
1. 나는 외롭다는 느낌이 든다.(*)	2.32(0.14)	9.7	-0.36	0.90	1.70	.667	.938
2.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한다.(*)	2.30(0.17)	8.88	0.00	1.02	1.73	.683	.937
41. 속상한 일들로 마음이 아플 때가 많다.(*)	2.27(0.15)	9.19	-0.67	0.32	0.96	.704	.937
11.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다.	2.24(0.13)	9.77	-0.85	0.47	1.32	.657	.938
26. 이런 저런 걱정이 많아서 집중이 잘 안 된다.	2.22(0.13)	9.05	-0.52	0.52	1.26	.659	.938
31.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2.22(0.15)	8.9	-0.26	0.78	1.58	.667	.938
12. 가족들(부모님이나 형제)은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	1.98(0.14)	7.38	-0.34	0.69	1.39		
27. 눈물이 자주 난다.	1.88(0.12)	6.65	-0.27	0.68	1.35		
24. 잘못되는 일은 모두 내 탓인 것 같다.	1.82(0.14)	6.35	-0.17	1.00	2.00		
의욕 및 신체활력 척도							
40. 나는 안절부절 못할 때가 많다.(*)	2.16(0.15)	8.09	-0.02	1.01	1.79	.591	.872
17. 아무런 간섭도 받고 싶지 않다.(*)	2.10(0.13)	7.84	-0.58	0.35	0.91	.632	.868
39. 쉽게 지치고 항상 피곤하다.(*)	1.95(0.12)	7.28	-0.39	0.71	1.43	.608	.870
15. 자주 화가 난다.(*)	1.94(0.12)	7.58	-0.57	0.65	1.52	.641	.868
6. 짜증이 난다.(*)	1.94(0.12)	7.89	-0.82	0.61	1.63	.638	.868
44. 나는 불평, 불만이 많은 편이다.(*)	1.88(0.12)	7.31	-0.81	0.43	1.25	.662	.866
22. 재미있는 일이 없이 지루하다.	1.82(0.12)	6.23	-0.27	0.79	1.33	.559	.873
42. 학교에 가기 싫다.	1.81(0.15)	6.25	-0.29	0.62	1.34	.568	.873

표 8. 아동우울척도 하위 척도의 문항양호도 관련 수치 (계속)

척도명/문항	문항 변별도	문항 정보값	문항범주 난이도			상관 계수	제거 지수
			1	2	3		
30. 꼼짝하기가(움직이기가) 싫을 때가 있다.(*).	1.76(0.11)	6.7	-0.99	0.50	1.32	.616	.869
45.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모조리 부숴버리고 싶 다.(*).	1.73(0.14)	5.53	-0.26	0.59	1.11	.598	.871
.....							
5. 모든 것이 귀찮다.	1.63(0.11)	5.88	-0.79	0.79	1.73		
38.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하다.	1.63(0.10)	5.67	-0.94	0.31	0.99		
9. 자고 일어나도 상쾌하지가 않다.	1.59(0.10)	5.47	-0.69	0.61	1.35		
14. 하고 싶은 일이 별로 없다.	1.56(0.13)	4.67	0.05	1.30	2.19		
10.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을 때가 많다.	1.43(0.09)	4.77	-0.92	0.79	1.92		
4.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1.03(0.08)	2.53	-0.47	0.99	2.12		
13. 시도 때도 없이 잠이 온다.	1.01(0.09)	2.1	0.22	2.13	3.34		
21. 최근 들어 지나치게 많이 먹는다.	0.90(0.10)	1.66	0.41	2.22	3.13		
교우관계 척도							
29. 학교생활이 즐겁지 않다.(*).	2.25(0.16)	8.41	-0.18	0.65	1.21	.608	.818
35. 친구들과 말을 하고 싶지 않다.(*).	2.20(0.21)	7.26	0.48	1.28	1.98	.615	.820
23. 나를 무시하는 애들이 많은 것 같다.(*).	1.97(0.14)	7.14	-0.23	0.80	1.44	.712	.795
19.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	1.79(0.15)	5.77	-0.04	0.86	1.43	.544	.831
3.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77(0.11)	6.31	-0.36	0.99	1.92	.659	.807
25. 마음을 터놓을 친구가 없다.(*).	1.72(0.13)	5.24	0.16	1.05	1.66	.612	.816
.....							
33.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1.63(0.12)	5.09	-0.05	0.96	1.61		
8. 친한 친구가 별로 없다.	1.50(0.11)	3.92	0.39	1.71	2.64		
16. 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는 편이다.	1.38(0.10)	4.43	-0.85	0.67	1.64		
20. 선생님은 나보다 다른 아이들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1.28(0.10)	3.45	-0.17	1.25	1.89		

주 1. 하위 척도별 문항변별도의 크기순으로 제시하였고 점선 위까지가 일차적으로 선정한 문항임.

주 2. 문항정보값은 -2.0 ~ +2.0의 능력범위에 관한 값임.

주 3. (*)표시한 문항은 최종적으로 도출한 단축형 문항임.

표 9. 하위 척도별 문항 수

척도명	인지와 정서	의욕 및 신체활력	교우관계	전체
원척도	17	18	10	45
단축형	12	8	5	25

표 10. 단축형의 신뢰도

척도명	전체	인지와 정서	의욕 및 신체활력	교우관계
상관계수	.98	.99	.95	.94
α	.93	.97	.87	.88
r	.94	.92	.92	.86

주 1. 상관계수는 원척도와의 상관계수임.

주 2. α는 원척도와의 내적 합치도임.

주 3. r은 검사-재검사 신뢰도임.

표 11. 단축형의 하위 척도 간 상관

	전체	인지와 정서	의욕 및 신체활력	교우관계
전체	-	.97	.90	.83
인지와 정서	.97	-	.82	.76
의욕 및 신체활력	.91	.82	-	.65
교우관계	.83	.75	.63	-

주 1. 아래는 단축형의 하위 척도 간 상관, - 위는 원척도와의 상관임(N=1,391).

주 2. 모든 상관계수가 .01수준에서 유의미함.

표 11과 같고 원척도와의 하위 척도 간 상관도 함께 제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단축형의 모든 하위 척도 간에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원척도의 척도 점수 간 상관 패턴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타당도를 밝히기 위해 9가지 타당도지표와의 상관을 구하였다(표 13). 아동우울척도의 단축형 역시 아동우울척도와 매우 비슷한 패턴의 수렴과 변별타당도를 나타내었다.

단축형의 준거 타당도

단축형의 수렴과 변별타당도

아동우울척도 단축형의 수렴타당도와 변별

아동우울척도 단축형의 준거타당도를 밝히기 위해 삶의 만족도 점수의 저, 중, 고집단을

표 13. 아동우울척도 단축형과 타당도지표와 상관

타당도지표	아동우울척도			
	전체	인지와 정서	의욕 및 신체활력	교우관계
삶의 만족도	-.69**	-.66**	-.61**	-.58**
불안검사	.67**	.65**	.65**	.48**
과도한 걱정	.63**	.61**	.61**	.45**
예민함	.66**	.64**	.67**	.41**
신체 수면상의 문제	.53**	.53**	.48**	.40**
자존감이나 불행감	.74**	.71**	.70**	.63**
우울(CDI)	.76**	.73**	.74**	.67**
부정적 자기상	.64**	.61**	.63**	.56**
대인관계	.73**	.72**	.65**	.69**
부정적 기분 및 신체적 증상	.67**	.63**	.69**	.57**
분노검사	.69**	.66**	.71**	.50**
특성 분노	.65**	.59**	.70**	.46**
분노 표출	.65**	.58**	.70**	.45**
분노 억제	.72**	.71**	.65**	.62**
분노 조절	-.07	-.02	-.11	-.10
사회정서적 고립척도	.60**	.55**	.48**	.71**
정서적 외로움	.74**	.71**	.66**	.66**
사회적 외로움	.38**	.34**	.28**	.51**
정서적 고립	.69**	.66**	.48**	.82**
사회적 고립	.28**	.22**	.25**	.38**
자아존중감검사	-.82**	-.80**	-.77**	-.65**
긍정적 정서	-.67**	-.65**	-.62**	-.54**
부정적 자기진술 질문지	.84**	.85**	.76**	.66**
우울관련 자기진술	.87**	.87**	.80**	.64**
부정적 자기평가	.82**	.81**	.72**	.73**
불안관련 자기진술	.71**	.70**	.63**	.61**
긍정적 자기진술	-.52**	-.48**	-.50**	-.43**
부정적 자동적 사고	.90**	.89**	.79**	.74**
부정적 자기평가	.81**	.82**	.70**	.62**
현실에 대한 불만과 변화 욕구	.89**	.88**	.80**	.74**
무기력과 절망적 태도	.81**	.78**	.68**	.79**

주 1. ** $p < .001$

표 12. 삶의 만족도에 따른 단축형 척도별 평균, 표준편차 및 F값

	삶의 만족도			F
	저	중	고	
전체	32.30a (16.44)	11.97b (8.09)	4.97c (5.90)	326.36***
인지와 정서	15.70a (9.06)	4.93b (4.25)	1.81c (2.84)	294.55***
의욕 및 신체활력	11.14a (5.46)	5.19b (3.55)	2.43c (3.01)	230.80***
교우 관계	5.46a (4.08)	1.85b (2.01)	0.73c (1.30)	163.33***

주 1. ()안은 표준편차. *** p<.001

주 2. 상이한 아래첨자가 붙은 평균들은 사후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음을 의미함(a>b>c).

선정하고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표 12). 아동우울척도의 준거 타당도와 마찬가지로 단축형에서도 삶의 만족도 점수의 저, 중, 고집단 간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며, 그림 2와 같이 삶의 만족도와 아동우울점수가 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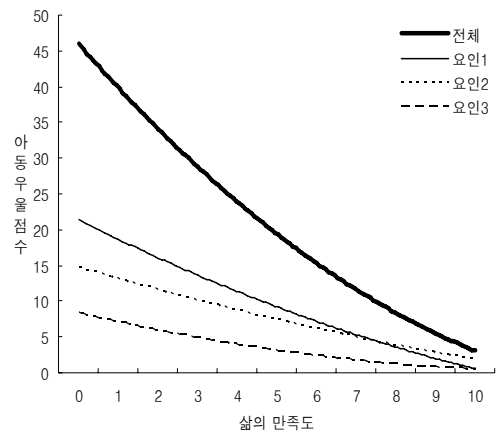


그림 2. 삶의 만족도에 따른 단축형 아동우울점수

례 관계에 있었다.

성과 학년에 따른 차이

아동우울척도 단축형의 3개 하위 척도가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성; 남, 여) × 4(학년; 3, 4, 5, 6학년)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성과 학년에 따른 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4와 같다. 아

표 14. 성과 연령에 따른 아동우울척도 단축형 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전체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n=737)	(n=654)	(n=1,391)	(n=72)	(n=58)	(n=130)	(n=182)	(n=160)	(n=342)	(n=245)	(n=214)	(n=459)	(n=238)	(n=222)	(n=460)
전체	12.27 (13.48)	13.62 (14.40)	12.90 (13.93)	14.73 (16.76)	13.45 (13.15)	14.15 (15.18)	12.53 (13.67)	13.05 (16.27)	12.77 (14.91)	11.19 (13.02)	13.00 (13.53)	12.03 (13.27)	12.48 (12.77)	14.68 (14.09)	13.53 (13.45)
척도 1	5.29 (7.05)	6.42 (7.51)	5.82 (7.29)	7.36 (9.12)	7.21 (7.58)	7.29 (8.41)	5.30 (6.87)	6.17 (8.16)	5.71 (7.50)	4.83 (7.09)	5.91 (7.03)	5.33 (7.07)	5.16 (6.38)	6.86 (7.44)	5.98 (6.96)
척도 2	4.98 (4.72)	5.33 (5.16)	5.14 (4.93)	4.83 (5.12)	4.98 (5.42)	4.90 (5.23)	5.02 (4.73)	4.71 (5.52)	4.88a (5.10)	4.45 (4.35)	5.08 (4.77)	4.74b (4.56)	5.52 (4.91)	6.10 (5.13)	5.80ab (5.02)
척도 3	2.08 (2.87)	2.05 (2.98)	2.07 (2.92)	2.73 (3.52)	2.37 (2.79)	2.57 (3.21)	2.36 (3.11)	2.16 (3.30)	2.26 (3.20)	1.96 (2.64)	1.94 (2.79)	1.95 (2.71)	1.81 (2.65)	1.99 (2.98)	1.90 (2.81)

주 1. 상이한 아래첨자가 붙은 평균들은 사후비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a>b).

주 2. 척도1은 인지와 정서, 척도2는 의욕 및 신체활력, 척도3은 교우관계 척도를 의미함.

동우울척도 단축형 역시 아동우울척도와 매우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논 의

본 연구는 기존의 아동우울을 다룬 연구들에서 보고된 아동우울의 임상적 특징이나 증상을 잘 반영하는 문항을 만들고 기존의 아동우울을 평가하는데 사용되고 있는 검사들을 취합하여 아동우울에서 나타나는 핵심적 특징이나 증상들을 망라하면서 심리측정적으로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자기보고형 아동우울척도를 구성하고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의 아동우울을 다룬 연구들과 기존에 아동우울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검사에서 우울 관련 문항을 수집하여 최종 45문항의 아동우울척도를 구성하였다. 또 가능한 적은 문항으로 효율적으로 평가하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도록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하여 25문항의 아동우울척도 단축형도 함께 구성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아동우울척도의 하위 척도, 비밀관성 척도, 신뢰도, 타당도에 대하여 결과를 요약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우울의 하위 척도를 밝히기 위해 주성분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척도간의 상관 이 있을 수 있음을 가정하는 프로맥스(promax) 회전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인지와 정서, 의욕 및 신체활력, 교우관계 3개의 하위 척도를 구성하였다. 성인과 달리 아동은 인지 와 정서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워 인지와 정서가 한 척도로 구성된 것으로 사료되며 신체 및 생리적 증상, 동기문제 등은 의욕 및 신체 활력과 관련된 하나의 척도로 구성되었다. 또

래관계와 관련된 문항들로 이루어진 척도는 교우관계 척도로 명명하였다.

둘째, 아동우울척도의 비밀관성을 밝히기 위해 총 7개 문항 쌍을 도출하였다. 비밀관성 척도는 전체 문항에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야 효과적이므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하였으며 이 척도로 무선적 반응경향, 수검자가 비밀관성 있게 반응하는 경향을 밝힐 수 있다.

셋째, 아동우울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전체 아동우울의 점수를 나타내는 45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97로 매우 높았고 인지 및 정서 척도는 .95 의욕 및 신체활력 척도는 .91 교우관계 척도는 .88이었다. 그리고 전체 문항의 반분신뢰도는 .95이었고 3개 하위 척도의 반분신뢰도는 .87~.92의 범위에 있었다. 또 시간에 따른 척도점수의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해 2주 간격으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문항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0이었고 3개 하위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1~.89의 범위에 있었다. 아동우울척도의 상관은 3개의 하위 척도와 전체 점수는 .85~.96의 범위에 있고, 각 하위 척도 간에는 .69~.84의 범위에 있었다. 아동우울척도 단축형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원척도와의 상관은 .94~.99 범위, 내적 합치도는 .87~.97의 범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6~.94의 범위로 모두 양호하였고 단축형의 모든 하위 척도 간에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으며, 원척도의 척도점수 간 상관 패턴과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 단축형에서도 원척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신뢰롭게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아동우울척도와 관련된 기존의 여러 지표들과의 상관을 구한 결과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우울척도와 관련된 불안, CDI, 부정적 자기

진술 질문지, 분노검사, 사회정서적 고립척도,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 같은 부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와는 정적 상관이 있었고, 삶의 만족도, 부정적 자기진술 질문지의 하위 척도인 긍정적 자기진술, 자아존중감 검사, 긍정적 정서와 같은 긍정적 특성을 재는 지표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특히 불안과 분노와의 높은 상관은 임상적으로 우울과 높은 공존률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석되며, 부정적 자동적 사고와의 높은 상관은 우울이라는 부적 정서가 개인의 주관적인 인지적 왜곡에 의한 것임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아동우울척도가 우울한 아동의 부정적 특성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삶의 만족도에 따라서 아동우울척도 점수가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삶의 만족도 점수의 저, 중, 고집단을 선정하고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아동은 대체로 우울 점수가 낮고 삶의 만족도가 낮은 학생은 우울 점수가 높은 반비례 관계에 있었다. 이로써 삶의 만족도가 낮은 아동이 우울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할 수 있었다.

다섯째, 3개의 하위 척도가 성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성; 남, 여) × 4(학년; 3, 4, 5, 6학년) 다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성과 학년에 따른 척도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큰 차이가 없고 의욕 및 신체활력에서 4학년과 6학년, 5학년과 6학년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아동우울척도 단축형에서도 마찬가지로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성과 학년에 따른 평균과 표준편차는 규준이 제시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검사를 실시한 후 아동의 대략적인 위치 혹은 정도를 파악하는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상을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구성한 아동우울척도와 아동우울척도 단축형은 내적 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 측면에서 신뢰롭고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는 아동우울의 임상적 특징과 기존의 아동우울을 평가하기 위한 검사들을 총망라해서 수정·보완하여 아동우울척도와 단축형을 구성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경남 지역의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대도시 및 전국 단위의 아동들의 일반화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후 연구에서 전국 단위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교차타당화하고 규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강경미 (1994). 소아기 우울증: 소아기 우울증의 개관과 발달학적측면. *소아·청소년정신의학*, 5(1), 3-11.
- 권석만, 윤호균 (1994) 한국판 자동적 사고척도의 개발과 활용. *학생연구*, 29, 10-25.
- 김경연 (1987). 부모의 아동평가, 자아존중,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존중과의 관계.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연 (2008). 인지행동적 교육프로그램이 아동의 우울과 인지적 오류에 미치는 효과. 진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주미 (2000).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증상과 인지변인의 지속성과 상호예측: 18개월 추적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성태제 (1991). 문항반응이론입문. 서울: 양서원.
- 성태제 (2001). 문항반응이론의 이해와 적용. 서울: 교육과학사.
- 양재원, 홍성도, 정유숙, 김지혜 (2005). 부정적 자동적 사고 질문지(ATQ-N)와 긍정적 자동적 사고 질문지(ATQ-P)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4(3), 631-646.
-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01).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 이민수, 이민규 (2003). 한국 우울증 검사 요약. 서울: 학지사.
- 이소은 (1999). 한국의 문화와 아동발달. 생활과학연구논총, 1(2), 53-64
- 이은경, 이양희 (2006). 아동용 정서경험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9(4), 93-115.
- 이은중 (2002). 아동후기의 애착 안정성과 완벽주의 성향이 우울 성향에 미치는 관계.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주영, 김지혜 (2002). 아동, 청소년의 우울 및 불안과 관련된 부정적 자기진술.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4), 871-889.
- 이혜련 (1993). 우울장애. 소아정신건강: 4(11), 1-8.
- 전경구 (1996).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연구 (II). 재활심리연구, 3, 53-59.
- 전경구, 김동연, 이준석 (2000).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XI-K) 개발 연구: IV. 미술치료연구, 7, 33-50.
- 조맹제, 김계희 (1992). 주요우울증 환자 예비 평가에서 the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Scale(CES-D)의 진단적 타당성 연구. 신경정신의학, 32(3), 381-399.
- 조수철, 이영식 (1990). 한국형 소아우울 척도의 개발. 신경정신의학: 29(4), 943-955.
- 조용태, 이근매 (2008). *The Child and Adolescent Depression Checklist (CADC)*. 서울: 마인드프레스.
- 최진숙, 조수철 (1990). 소아 불안의 측정: RCMAS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 신경정신의학, 29(3), 691-701.
- 허승희 (1993). 국민학교 아동을 위한 사회정서적 고립척도 개발. 초등교육연구, 7(1), 19-34.
- 홍상황, 광경숙, 김미라 (2009). 아동용 분노조절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 초등교육연구, 19, 35-58.
- 홍상황, 한태희 (2007). 한국아동인성평정척도 교사용(KPRC-TRF)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4(2), 125-152.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4). *DSM-III: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th ed. Washington DC. APA.
- Achenbach, T. M., & Edelbrock, C. S. (1983).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and revised child behavior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94). *DSM-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APA.
- Baker, F. B. (1985). *The basic of item response theory*. New Hampshire: Heinemann.
- Baker, F. B. (1992). *Item response theory: Parameter estimation techniques*. New York: Marcel Dekker, Inc.
- Calson, G. A., & Kashani, J. H. (1988). Phenomenology of Major Depression from

- Childhood through Adulthood: Analysis of Three Studie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 1222-1225.
- Castenada, A., McCandless, B. R., Palermo, D. S. (1956). The children's form of the Manifest Anxiety Scale. *Child Develop*, 27(3), 317-326.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San Francisco: Freeman.
- Cytryn L., & McKnew D. H. (1972). Proposed classification of childhood depressio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9; 149-155.
- Glaser (1967). Masked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21, 565-574.
- Helsel, W. J., & Matson, J. L. (1984). The assess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The internal structure of the Child Depression Inventory(CDI).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2, 289-298.
- Hollon, S. D., & Kendall, P. C. (1980). Cognitive self-statements in depression: Development of an automatic thoughts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4, 383-395.
- Kovacs, M. (1983). *The Children's Depression Inventory: A self-rating depression scale for school-aged youngster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Pittsburgh.
- Kovacs, M., Gastonis, C., Paulauska, S., & Richard, C. (1989). Depressive disorders in childhood: IV. A longitudinal study of comorbidity with and risk for anxiety disorders.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6, 776-782.
- Reynolds, C. R., & Richmond, B. O. (1978). What I think and feel. A revised measure of Children's Manifest Anxiety. *J of Abn Child Psychol* (2), 271-280.
- Ronan, K. R., Kendall, P. C., & Rowe, M. (1994). Negative affectivity in childr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elf-statement questionnaire.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18, 509-528.
- Samejima, F. (1969). Estimation of latent trait ability using a response pattern of graded scores. *Psychometrika Monograph*, No. 17.
- Seong, T., Kim, S., & Cohen, A. (1997). *A comparison of procedures for ability estimation under graded response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National Council on Measurement in Education, Chicago, II.
- Thissen, D. M. (1991). *MULTILOG: multiple, categorical item analysis, and test scoring using item response theory{computer program}*. Moorsville: Scientific Software Inc.
- Toolan, J. M. (1962).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32, 404-414.
- Veenhoven, Ruut Ouweneel, Piet. (1995). Livability of the welfare-state. *Social indicators research*, 36, 95.

원고접수일 : 2009. 9. 28.

게재결정일 : 2009. 11. 30.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Child Depression Scale

Yu-jin Bae

Sang-hwang Hong

Yongnam Elementary School Dept. of Education,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is study aimed to construct a reliable and reasonable Children Depression Scale including core features and symptoms of children depression and test its reliability and validity. Clinical features revealed in the existing papers about children depression were derived and items already used in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These features and items were classified into emotion, cognition, physical-physiological symptoms, motivation, and peer relationship. 54 preliminary items that were drawn were administrated on 1,515 3rd ~ 6th grade students at 7 elementary schools, in Gyeongsangnam-do. Finally, 45 questions were determined through consideration of its skewness, kurtosis, mean, standard deviation, item-total correlation, internal consistency, and meanings of the item. Reliability, internal consistency, convergence and discrimination validity of the items and subscales were tested and short form consisted with 25 items was constructed based on item-response theory. Range of internal consistency of Children Depression Scale was .88~.97, range of split-half reliability was .87~.95, range of test-retest reliability was .81~.90. Range of internal consistency of short form was .87~.97, test-retest reliability was .86~.94. Convergence and discrimination validity were also appropriate. Although main effect of gender and productive academic year was significant, interaction was not. Other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children depression, children depression scale